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한 동충하초 버섯 재배방법

지상덕, 남성희, 조세연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현재 동충하초 재배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애누에 공동사육상과 스티로폴 상자 2종인바 애누에 공동사육상은 고가로서 미보유 농가의 구입이 곤란하고 작업시 2인이상이 있어야 하며, 차지하는 공간이 넓게 소요되는등 문제점이 있고 스티로폴 상자는 스티로폴 가루등의 이물질이 동충하초에 혼입됨으로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45×75×20cm되는 플라스틱 상자내부에 높이4.5cm되는 재배상을 4개씩 비치하여 고밀도로 재배한 결과 자실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방법은 외부 플라스틱상자 바닥과 측면에 8-5mm의 구멍을 8-5cm 간격으로 뚫은 다음 내부재배상에 광목을 깔고 감염번데기를 올려놓고 3일 간격으로 3회정도 물을 뿌려주면 되며 이때 재배상 내부 온도가 2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 시켜야 한다.

본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함으로써 버섯재배상 구입비용이 기존 애누에 공동사육상에 비하여 60-70%절감되고 재배실 면적은 50%절감효과가 있으며 버섯 재배 관리인력이 2명에서 1명이면 가능해져 노동력 절감효과도 클것으로 기대된다.